3/31/19

설교 제목: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가복음 2 장 1-12 절

(막 2:1) 수 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막 2:2)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막 2:3)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막 2:4)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절관주] 눅 5:19

(막 2:5)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막 2:6)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막 2:7)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막 2:8)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막 2:9)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절관주] 마 9:5

(막 2:10)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막 2:11)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막 2:12)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제자를 택한 후 그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방문하셨던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 권세있게 가르치셨고 귀신들린 사람을 고치셨으며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몰려 온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셨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빠져나와 갈릴리 주변 가까운 마을들을 다니시며 전도하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서 상당히 크고 중요한 도시였으며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의 집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중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몰려 들었습니다.

(막 2:1) 수 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막 2:2)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은 가버나움 베드로와 안드레 집에 머무시면서 소식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사람들이 왜 몰려 들었을까요?
복음을 듣고 싶어서요?
지난 번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찾아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또 그런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기에 그들의 기대대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어 일시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을 하시기 보다는 그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영원히 해결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당하는 고통만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그것을 극복하는데 온통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당장 병을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 받는다고 해도 세상 살면서 또 병이 들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당장 직면한 병을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일시적인 것 보다는 영원한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지붕에서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이 내려왔습니다.

(막 2:3)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막 2:4)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당시 그곳의 집들은 보통 흙 벽돌로 지어진 단층 슬라브 집으로 지붕은 평평했고 방은 하나로 되어 있었으며 바깥에는 지붕으로 올라 갈 수 있는 계단이 있였습니다.
지붕은 나무로 들보를 놓은 후 짚을 엮어 그 위에 덮고 그 사이를 흙으로 채워서 비를 막게끔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풍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 고침을 받도록 하려고 했으나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인 관계로 그것이 여의치 않자 계단을 통해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의 흙과 짚을 뜯어내고 들보 사이로 중풍 병자를 짚으로 만든 자리나 담요 같은 것에 뉘여 달아 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막 2:5)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들은 중풍 병자의 병을 치유받기 원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좀 싸아 해집니다.

(막 2:6)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막 2:7)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하시자 하나님도 아닌 사람이 죄를 사하다니 이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이들은 속으로 괘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신성 모독죄, 이것으로 예수를 옭가맬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기관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경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장에서 무슨 일이 언급되어져 있습니까?

(막 1:21)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막 1:22)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다름을 깨닫고 비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서기관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심지어 문둥병까지도 고치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 에수님의 인기가 치솟습니다.
이렇게 되니 서기관들의 마음에 질투가 생깁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고 하니 찾아와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에 책을 잡을 것이 있나 살펴 책을 잡을 것이 있으면 엮으려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마음 속 생각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막 2:8)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막 2:9)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중풍 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하는 것과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쉽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풍 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하는 것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사하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 중 어느 것이 쉬운 일입니까?

물론 죄를 사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라는 하나님도 아닌 사람이 죄 사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개역 성경에는 '참람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람하다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는 주제넘고 건방지며 사악하게 타인을 중상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의 특권을 탈취하거나 신을 불경스럽게 모독한다는 뜻입니다.
율법에 신성 모독죄는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 24:16)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러나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병을 고치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것이 죄를 사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 병자를 향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는지 당장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네 상을 가지고 걸어 가라고 하시면 당장 사람들 앞에서 중풍 병자가 상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중풍 병자의 죄를 사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로 할 수 있으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 가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생각하면 중풍 병자에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 가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서기돤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비롯한 모인 사람들 앞에서 중풍 병자를 향해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막 2:10)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막 2:11)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당신이 중풍 병자의 병을 고쳐 주기 이전에 죄를 사해 준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 병자에게 '일어나' '가지고' '가라'의 3 중적인 명령을 하심으로 중풍 병자가 병으로부터 완전한 치유를 얻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바로 전에 행하신 죄사함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심으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막 2:12)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중풍 병자는 예수의 권위에 대항했던 사기관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일어나 상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목격한 무리들은 다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자신들 앞에 계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야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중풍을 고쳤다는 사실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신데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중풍 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을 대수롭지 않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3 년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요.
그들이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았다 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습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 주셨다고 나사로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습니까?
그들은 결국 다 죽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그 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입은 사람만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병을 고침받고 아프지 않게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 책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인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다면 다른 모든 문제 해결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인간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받는 일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우리 인생이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천하를 다 얻고 자기 생명을 잃는다면 그 천하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부귀 영화 권세를 다 손에 웅켜졌다고 할지라도 죽을 때는 손을 펴고 다 놓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피었다 지는 들풀과 같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이는 하나님 한 분 뿐이십니다.
그 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 죄의 삯인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 모두 다 내려 놓고 주님만 사랑합시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 드립시다.